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11일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인가 등록 1960년 7월 1일 등록번호 제 다253호

발 행 인 황 병 태
편집인겸주간 노 승 우
편 집 장 이 홍 규
발 행 소 한국 외국어 대학교
외대신문사 (직통전화962—7128)
외 대 학 보(직통전화 967—9332)
13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170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인 쇄 인 조선인보사 방 두 영

제422호 <주간>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985년 9월 10일 (화요일)

성적평가기준 교수따라 큰 격차

과목따라 학점평균이 4.1에서 2.1까지 큰 차이

공정한 운영 위해 상대평가기준 최소한 고려해야

졸업정원제 실시에 따른 상대평가 기준이 지켜지지 않아 성적 평가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80년 졸업정원제가 실시되면서부터 성적 평가가 졸업정원제 운영의 결대적 요인이 됨에 따라 본교도 이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기하기 위해 상대평가 반영기준을 마련하였다. 교무처가 마련한 상대평가 반영기준에 따르면 A+에서 A°가 20~25%, B+에서 B°가 35~40%, C+에서 C°가 30%, D+에서 F가 각각 0~10%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이러한 기준이 제대로 지켜져오지 않았으나 특히 지난 1학기 성적처리 결과 일부 교수가 제출한 성적보고서의 평가비율이 상대평가기준보다 지나치게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되어 성적이 산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들면 전체 1백12명이 수강했던 모 교양선택과목의 경우 전체 평균학점이 4.14(평균 A°)로 산출된 반면 50명이 수강했던 다른 교양선택과목은 평균이 D°로 산출되었다.

특히 교양영어 강독, 교양영어 언어실습등은 전체 평균학점이 B+에서 C+까지 평균 두단계까지 공백이 생겨 같은 학과라도 몇개 반으로 나눠질 경우 담당 교수에 따라 반기리 전체성적에 큰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교양선택과목으로 과목에 따라 학점평균이 4.14(A°)에서 2.10(C°)까지 무려 2배이상의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 심하진 않지만 전공과목에 있어서도 담당교수에 따라 성적의 차이가 적잖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교수에 따라 성적 평가비율이 달라 학사행정에 큰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 졸업정원이 초과상태이기 때문에 교무처가 학사경고선을 계속 높여 불가피하게 중도탈락자를 늘려야 하는 실정 (본보 5월 14일자 1면 보도) 에서 이같은 평가가 중도탈락의 요인이 되어 반발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성적이라도 교양과목을 잘못「선택」해서 제적되었다는 반발이 있을 수 있고 교양과목의 선택에 따라 졸업이 늦어지는 경우도 예상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점취득이 용이한 일부 교양과목에 편중되거나 학점취득이 쉽 까다로운 과목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교무처도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 교수 앞으로 협조문을 보내 이러한 성적평가로 인해 『학사행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제하고 『상대평가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물론 성적평가는 침범할수 없는 교수의 고유재량이고 기준보다 상이한 상향이나 하향조정평가가 교수개인의 판단이 다 다름으로 인해 어쩔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결과가 졸업정원제와 중도탈락에 있어 뜻밖의 문제를 야기시킬 요인을 내포하고 있어, 상대평가기준의 최소한 적용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보인다. <취재부>

장태석군에 3년 구형

7일, 2차 공판 끝나

전 삼민투위원장 장태석군(법정 D·4년 제적)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되었다.

지난 9월 7일(토)오전10시 서울 지방법원 북부지원 제 1호법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장태석군과 경희대 삼민투위원장 신동근군에게 징역 3년을, 시립대 삼민투위원장 김희수군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하였다.

장군등은 지난 5월 29일(수) 영등포에서의 가두시위로 연행되어 5월 31일(금)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와 폭력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구속되었었다.

외대학술상 시상식거행

지난 6월 시상예정이었으나 용인농성사태로 연기되었던 제3회 외대학술상 시상식이 9월6일(토)오후 3시 30분, 본보 주간 교수실에 열렸다.

인문과학분야 가작 당선자인 여상문군 (사범Ge·2) 과 사회과학분야 가작 당선자인 장필준(어문R·2)에 대한 이날 시상에서 본보 편집인 노승우교수는 『학박한 외대의 학술풍토에서 앞으로도 배전의 노력을 당부한다』고 격려하였다.

용인총학생회, 활동착수

박재형 총무부장 권한대행키로

지난 1학기 학내동성으로 인해 총학생회장 홍일웅(어문R·3), 부학생회장 오승준(어문S·4)군을 비롯한 홍보부장, 여학생부장등 총학생회 임원진이 대거 제적됨으로써 사실상 와해 상태에 놓여 있었던 용인캠퍼스 총학생회는 박재형 총무부장(어문A·3)이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2학기 활동에 착수하였다.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와 각 단과대 간부들은 지난 7월15일 대천에서 수련회를 갖고 유고공이던 회장직을 총무부장이 승계하는데 합의하고 중요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켜 각단대장들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박재형 총무부장은 그동안 미진했던 졸업앨범제작, 교지편집, 황산체전과 회계조정작업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인 총학생회는 9월14일(수)학생들에게 발표한 1학기 학생회 운영방안 이라는 공고문을 통해 지난1학기 동성에 대한 학교측의 부터기 정계처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제적생 88명의 복적 추진과 함께 추가 징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기로 했다. 어문·사회대등 각 단과대도 이번주중으로 2학기 공동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미비점 많은 용인 건설계획

2학기 개강을 맞아 신설된 학생휴게실과 휴식공간을 위한 공사들이 실속없는 겉치레 뿐이라는 불평이 나오고 있다.

현재 휴게실 현황을 보면 제1강의동에 여학생 휴게실, 도서관 휴게실등 2개, 2강의동에 1개, 문리대에 2개, 제4강의동에 1개가 있으나 대부분이 여건이 미비한 상태이다. 1강의동에 있던 교수식당이 제2강의동으로이전되고 그자리를 학생휴게실 및 식당으로 활용하기로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시설이없는 상태이며 현재의 식당이 매우비좁은 상태여서 휴게실로 사용하기는 힘든 형편이다. 1강의동의 도서관 휴게실은 13평의 협소한 공간에 강당용 긴나무의자 10개만 있을뿐 여타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

더우기 교수식당이 기존 32평에서 2배가량 확장 이전됨에 따라 그강의동 휴게실의 대폭축소와 함께 강연회나 기타 전시회등의 활동을 할수없게 되었다. 이밖에 문리대도 기존 여학생 휴게실과 1층 휴게실이 폐쇄되고 2층 매점을 휴게실로 용도변경한 것 역시 여건이 미비한 형편이다.

한편 제4강의동 맞은편의 소운동장 건설과 제1강의동 아래 휴식공간 진척상황 또한 부진한 상태이다. 서무과의 한 직원은 『1강의동 아래 휴식공간공사는 인력부족 때문에 연기상태이며 소운동장 건설도 완공 임시가 아직 미정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형식적인 건설계획 때문에 학생들의 불신감만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강의동 명칭도 문제가되고 있는데 당초 제3강의동으로 확공된 용인캠퍼스 신축교사가 제3강의동, 제4강의동, 신축교사등 건물명칭이 불분명해 학생들사이에 혼선을 빚고있다.

학생들은 『기왕에 각단대별 건물명칭이 정립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문리대만을 예외로 할수없으며 시간표상에는 4강의동으로, 부를때는 제3강의동으로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문리대 강당」도「대강당」으로 바꿔 불러야 한다는 것이 학생들의 의견이다.

여기에 대해 교무과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신축교사외건물명칭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있다. 기존의 1강의동도 지금까지 어문학관, 사회과학관등으로 일정치 않게 불려져 왔다.

성남 민정당사에 투석 시위

시위 주도한 박용주군 연행

본교 용인캠퍼스 학생 30여명을 포함한 80여명의 학생들은 지난9월3일 (화) 오후 7시경 성남시 신흥동에서 「학원안정법」 반대 가두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신흥동에 있는 경기제1지구 민정당사부실(위원장 : 오세응) 유리창 14장을깨고 「학원악법 제정중지」 「직선개헌 실시」 등의 구호를 외치며 중앙시장쪽으로 200m 진출하면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의해 해산했다.

또한 시위 학생들은 「애국시민에게 드리는 글」 이라는 제하의 유인물 800여장을 시민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부근 전철 옥상에서 확성과 핸드마이크를 들고 시위를 주동하던 전용인캠퍼스 총학생회 홍보부장 박용주(어문R·4년제적) 군등을 연행하였다.

용인캠퍼스 학생회 대토론회 개최

용인 캠퍼스 「학생 대토론회」가 오는 9월16일(월) 오후3시30분 용인캠퍼스 대운동장에서 개최 된다.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와 각단대 학생회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1학기의 활동 반성과 앞으로의 방향설정등을 논의하게 된다.

11일부터 매스컴 특강

본교 법정대 홍보학과 주최 매스컴 취업특강이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9월11일부터 25일까지 6411호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번 특강에서는 86년 3월까지 실시되는 매스컴 제분야의 취업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본교생을 대상으로 신문, 방송, 홍보분야, P R및 사보와 광고기획등에 걸쳐 정보제공과 시험문제전석을 강의한다. 강사진은 현직언론인과 매스컴 관련업체의 경영인, 본교교수로 짜여있다.

강의는 주3회로 총9회이고 첫째주와 둘째주는 수, 목, 금요일에 세째주는 월, 화, 수요일이다.

등록은 9월10일까지 홍보학과 장실에서접수하며 회비는 6,000원으로 선착순 150명에 한한다.

(특강일정 7면)

학생문

▲문제판사를 지방파견시켰다고
—삼권분립 (三權合立) 의 새민주체제
▲문교부, 데모일어나면 교수가 즉시 출동해야한다고
—종로에서 방망이 휘둘러 에서 눈흘기는 교학서니…

인천에서도 가두시위 전개

본교등 9개대 2백50여명 연합으로

지난 9월 7일(금) 오후 7시경 본교생을 포함한 서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등 경인지구 대학 학생 2백 50여명이 인천에서 가두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인천시 남구 주안동 삼미 쇼핑센터 앞과 동구 송림동 현대극장등에서 『학원 악법철폐하라』, 『구속 노동자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또 『학원안정법을 온몸으로 저지하자』라는 제하의 유인물을 뿌리며 약 20분간 시위를 벌이다 경찰이 출동하자 화염병으로 대항하면서 해산하였다.

본교 연행학생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용인 일부학과장실이동

1강의동 4층에 있던 어문대학과장실중 마인어과등 일부 학과장실이 9월 6일(금) 같은 건물 5층으로 확장 이전 되었다.

학과장실과 사무실로 분리되어 쓰일 이번 사무실 이전은「학과장의 연구·학생지도와 학과업무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5층에는 마인어과, 태국어과, 스와힐리어과, 인도어과등 4개학과가 이전되었으며 기존 4층에 있던 영어과학과장실등 10개학과는 그대로 위치한다.

후기 졸업시험 10월4일 논문 마감 11월9일까지

85학년도전기졸업예정자중 서양어대학 (불어과제외) 과 동양어대학, 사범대학 (한국어 교육과제외) 의 졸업시험이 일반 과목은 10월 4일(금), 언어실습및 회화는 10월 5일(토)실시된다.

졸업시험응시원서교부및 제출은 9월12일 (목) 부터 14일 (토) 까지 해당학과장실에서 하며 졸업시험시간표는 9월23일 (월) 에 발표 된다. 또 법정, 상경대학과 불어과, 한국어교육과, 철학과의 졸업 논문은 9월 14일 (토)까지 논문작성계획서를 제출하여 11월 9일 (토)까지 논문제출을 마감해야한다.

용인 학생대토론회개최

용인 캠퍼스 「학생 대토론회」가 오는 9월16일(월) 오후3시30분 용인캠퍼스 대운동장에서 개최 된다.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와 각단대 학생회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1학기의 활동 반성과 앞으로의 방향설정등을 논의하게 된다.

11일부터 매스컴 특강

본교 법정대 홍보학과 주최 매스컴 취업특강이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9월11일부터 25일까지 6411호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번 특강에서는 86년 3월까지 실시되는 매스컴 제분야의 취업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본교생을 대상으로 신문, 방송, 홍보분야, P R및 사보와 광고기획등에 걸쳐 정보제공과 시험문제전석을 강의한다. 강사진은 현직언론인과 매스컴 관련업체의 경영인, 본교교수로 짜여있다.

강의는 주3회로 총9회이고 첫째주와 둘째주는 수, 목, 금요일에 세째주는 월, 화, 수요일이다.

등록은 9월10일까지 홍보학과 장실에서접수하며 회비는 6,000원으로 선착순 150명에 한한다.

(특강일정 7면)

부직 활성화 방안 마련

학생처는 부직 알선업무의 효율과 신속을 기하기 위한 「부직알선 활성화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첫째로 부직알선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제까지는 수시로 받아왔던 부직신청접수를 매년초 3월 5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설정된 기간내에만 받고 복학자의 추가신청을 9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접수하기로 하였다. 또 회망직종도 정확히 1개 직종만 선정해서 신청을하도록 하였다.

둘째로 신청한 학생의 순번에 따라 신청대장과 직종별 현황카드등을 분류유지하는 한편 특기자는 분류, 즉각 알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째로 직종별 신청자 현황에서 추천의뢰 직종에 해당하는 적격학생을 가능한 신청순으로 선발하기로 하였으며 부직 알선학생에 대해 철저한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네째로 부직 알선및 추천후에도 추천의뢰처의 불편사항과 최초계약과의 이행상태 여부 등을 수시로 파악, 개선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또 아르바이트 알선업무의 분제점과 개선책등의 분석·평가를 위해 매년 2회(3월초, 9월초) 평가회를 갖기로 하였다.

한편 학생처는 부직 보수금액의 일정액을 자발적으로 납부케하여 장학기금학생 복지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혁신」보다 반성이 중요하다

맨위자

▲처서, 백로도 다 지나고 이제는 완연한 가을의 문턱일텐데 수확의 이 계절에 마음은 허전하다. 세상 돌아가는 일이 이처럼 자연의 순리를 소삭(笑殺) 시켜는지. 내내 몸부림을 쳐봐도 거두어 들일 것이영 시원치 않다.

▲그때 「자기혁신」을 실천하겠다는. 문제의 본질을 알고나 하는 소리인지. 자기반성도 앞서지 않은 「자기혁신」을 선언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국민과의 친화에 중점을두겠다는데 정말 친화를 갈망한다면 「민(民)은 졸(卒)이아니라는 사실」부터 좀 보여주었으면. 한손에 180억을 쥘리다가 환원하면 그만이고 배고프지않게 해달라고 소리높이면 입 틀어막던 시절은 아주 가버린것일까. 『좋아졌네 좋아졌어』. 그래도 군림과 소외의 먼 간격에서 친화는 생길수 없다더라.

서민위주의 정책개발을 적극추진하겠다하여 반갑다 실었더니 값자기 부슨대대적인 외채철감운동인가. 돌다좋은 소리이건만 아주가 맞지않는다. 없는놈의 나라에 부동산투기니 향락산업이니가 세상판치도록 내버려둔것은 누구고 그것에 정작 발맞춘 것은 또 누구였던가. 그수많은 권력형부정부패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 나라 경제구조도 잘모르는체 온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핍 (耐乏) 을 한다고 외쳐가 들어들고, 경제는 자립할까. 외채많은 어떤 나라들은 외채의 극복이 국민에게 기반을 둔 진정한 민주정부의 수립으로 대외의 존경제의 극복을통해서만 가능하다며 민주화운동을 벌였다더라.

수많은 농가가 빚 더미 위에 앉도록 무분별하게 농축산물을 도입하는 정책이 친화정책이라 할수 있을까.

문제학생의 선도에도 열정을 투겠다는데 무엇이 문제인지는 들어보려도 않고 덮어둔 채, 그저 선도만 하면 그게 정답한 선도인지. 왜 정말 문제는 덮어두려고만 하나. 그래서 대학생 애들은 「도둑놈 개 꾸짖는다」며 「무머기 무서워 장 못담그지 않는다」고 되려 큰소리 치더라. 환부를 챙피하다고 숨기면 더썩어 들어가는 법이다.

이러니 이제 개헌문제까지 들썩거린다.

호헌만 내세울게 아니라 있는 법을제대로 지켜나 보았는지.

이래저래 무조건 「강력한 변신」을 위해 당체제를 강화한다는데 문제의 본질은 사람이고 그 마음 쓸씀이 걸치레가 아니다. 옷만 갈아입고 새 사람이 되었다 자랑하면 웃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

▲민심은 천심이라 하니 행한 마음 달래고 그래도 가는데까지 가 보기로하자.

<양정철>

제 35 기

수습기자 모집

많이 학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으로 장사(葬事)를 치를 수는 없습니다. 허 잔인 만신창이 민주는 다시 살아, 오도된 역사를 바로 잡을 짧없는 비판과 실천을 외치고있습니다.

시대는 바른 말을 원요로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암제의질곡속에서도 예봉(銳鋒)을 휘두를 용기있는 자를 원합니다.

△자 격 : 1학년 재학생
△모집부문 : 일반기자 ○○명
사진, 컷기자 각○명
△제출서류 : 본사 소정양식 응시원서, 사진 1매
△원서배부 및 접수처 :
서울—학생기자실 (학생회관 309호)
용인— 〃 (제3강의동 401호)
△필서접수기간 : 9월 3일~9월25일
△시험과목 : 1 차 필기시험—국어 (한문, 기사작성 포함)
상식, 논문
(사진, 컷기자는 실기 포함)
2 차 면접시험—1차 합격자에 한함
△시험일시 : 1 차—9월25일 (수) 오후 5시 (장소추후공고)
2 차—9월26일 (목) 오후 5시 (장소 학생기자실 본보주간실)

외 대 학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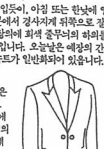
울로 느끼는 마음의 여유
Feel more rich with wool

좋은 옷도 때와 장소에 맞아야 멋과 품위가 살아납니다.

골덴텍스가 드리는 7가지 어드바이스

마음에 드는 좋은 옷이라도 때와 장소를 구별하지 않으면 옷을 잘 입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옷은 자신의 표현이자 타인과 분위기를 존중하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골덴텍스는, 좋은 옷이 때와 장소에 따라 멋과 품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전통적인 예복에서 평상적인 복장까지 그 종류와 용도를 소개합니다.

2. 오전 정식회합과 모닝코우트
아간의 공식모임에 연미복을 입듯이, 이침 또는 한낮에 열리는 의식이나 예식에는, 앞쪽 허리부분에서 경사지게 뒤쪽으로 잘라내려 뒤쪽에 꼬리를 붙인 검은색 상의에 회색 줄무늬의 하의를 받쳐 입는 모닝코우트가 정통예복입니다. 오늘날은 예장의 간소화에 따라 이의 약식인 디렉터즈 슈트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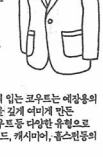
3. 예복으로 일반화된 턱시도
약혼 및 결혼식, 공식만찬회에는 검은색 혹은 짙은 감색의 턱시도를 입습니다. 아간의 약식예장으로 시작되어 일반예복으로 애용되는 턱시도는 상의에 윗트가나 앞쪽트기를 하지 않는게 특징이며 하의의 앞쪽 솔기에는 검은색 측장을 달고 검정색 조끼에 흰색의 와이셔츠를 받쳐 입습니다.

1. 아간 정식회합과 연미복
아간의 각종 파이티와 정식회합 그리고 오페라등의 관람시에는, 상의의 앞쪽이 짧고 뒤쪽으로 두갈래의 꼬리를 길게 늘어트린 검은색 연미복을 입습니다.
이의 약식인 블랙 슈트가 일반화되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잘 입지 않고 있지만, 저급도 여전히 전통적 예복으로 최고의 존중을 받고있는 신사의 정식예복입니다.

4. 일상업무와 신사복
일명 비지니스 슈트라고도 불리우는 신사복은 일상 업무에서 뿐 아니라 일반적인 사교등 모든 사회생활에서 보편화된 남성의 기본정장입니다. 상의의 형식에 따라 상굴과 더블로 구분되며, 색상과 소재는 취향에 따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데, 타간 예장을 복식을 대신해는 더블정장에는 검은색 또는 진한 감청색 무지의 복지를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직면접시엔 줄무늬 넥타이를 함께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꼭 착용해야 할 복장입니다.

5. 예복으로도 캐쥬얼로도 좋은 블레이저
격식을 요구하지 않는 자리에선 캐쥬얼웨이로, 공식적인 모임에선 예복으로도 다양하게 입을 수 있는 복식으로는 블레이저가 있읍니다. 조금 헐렁한 디자인에 패치포켓과 금속단추를 특징으로 하는 블레이저는 원래 전통적이었으나 오늘날 특정 색깔과 무늬에 구애받지 않아 디자인과 색상에 어울리는 바지와 함께 입으면 언제 어디서나 훌륭하는 예복입니다.

6. 격식없는 자연스런 멋과 콤비
하물없이 지내는 친구, 이웃, 친척을 방문하거나 이들과의 만남을 위해 외출하는 등의 사적인 자리에는 경쾌하고 신뜻한 콤비가 좋습니다.
원래인 코오디네이트 슈트가 발해주듯 이 복식의 생명은 상하의의 멋진 조화에 있으며, 이에 의해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 분위기를 연출해내는 것은 현대남성의 빠트릴 수 없는 패션 센스입니다.



7. 방한과 멋의 효과, 코우트
방한, 방우, 방풍등의 목적으로 제작이나 슈트위에 입는 코우트는 예장용의 체스트 피일드, 스트리한 라운딘 코우트, 일자라을 길게 여미게 만든 엘스터 코우트, 종이 넉넉한 상자모양의 박스 코우트등 다양한 유형으로 남성의 멋을 더할 수 있으며, 겨울용은 주로 트위드, 캐시미어, 홈스펀등의 모직으로 만들어집니다.

"좋은 옷은 좋은 복지가 만듭니다..."
색상, 디자인, 소재에서 항상 새로운 감각을 창조하는 골덴텍스

최고의 품질
골덴텍스
第一毛織

사설

경찰의 학원내 진입에 대하여

불필요한 충돌은 삼가하기를

2학기를 맞은 대학의 자율화가 정부의 「공권력」개입이라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국면은 개강 전과 「학원법」 보류뒤에 이미 예견된 조치였다고는 하나 83년말 「구속학생 석방및 제적생 복교허용조치」가 취해진 이후 처음으로 「주어진 자율화」에 대한 진정한 실체를 드러내 보였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부당국에 의한 「학원자율화」 포기 선언으로 모든이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찰이 대학 시위에 대하여 교내에 진입하여 진압하기로는 실로 학원자율화 조치 3학기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개강초부터 경찰이 학원내에 진입하여 시위를 진압한 학교로는 지난 1주일동안 3일 연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와 6일 고려대에서 개최된 전학련 주최 「국민대토론회」 때등 4개교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소위 「시위다발대학」, 「주요 7개대학」 등 시위가 예상되는 학교에는 「학교측의 요청없이 이 경찰재량권」으로 사전에 사복경찰관 1~2백명을 투입시켜 사전진압하겠다는 것이 관계당국의 구상인듯 싶고보면 도다시 대학교내에서 진압경찰관의 군화소리가 진동치는 대학 캠퍼스 수는 급증할것이 틀림없다.

사실상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6월29일 전국 9개대학에 일제히 경찰의 수색이 있었고, 그동안 경찰은 「학교측의 요청이 없어도 경찰력을 교내에 투입시키겠다」고 수시로 천명해 왔었다. 또한 「삼민투위」를「용공이적단체」로 규정, 관련학생들에게 국가보안법을 대거 적용하였고, 대학생 캠프활동에 따른 「교문폐쇄」특히 「학원안정법」보류뒤에는 그 대안으로서 적극적인 시위진압책이 강경하게 제시되었기때문이다.

여기에 우리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게 된 「표면적인 이유」없고도 「학원내의 경찰진입」의 진정한 저의가 현 「정치권」내의 일종의 「포석」이 아니었겠는가는 의문을 한 강력히 제기된다. 그것은 현 집권세력이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에 참패했으면서도 선거제도를 이용하여 다수당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 자신들의 역압책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하여 국회를 다소 활성화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민권운동세력에 대해서는 물리력인 힘과 대대적인 선전공세를 통하여 대응하고 있다는 점들이 지적될수 있다.

또한 현 집권세력의 뿌리깊은 86, 88체육경기, 평화적 정권교체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현지배세력에 순수하게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부문인 「학생운동」을 탄압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학생운동」이 노동, 문화, 언론운동 부문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는 그들의 인식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학원을 「물리적 강제력」으로나마 진정시키지 않고서는 86, 88의 「정치일정」에 심각한 치명타를 입지않을가하는 「조바심」의 표현이라고 볼수도 있는것이다.

여하튼 「학원내의 경찰진입」이란 현실에 직면해서 집권층이 아직도 「학원자율화의 대원칙에는 변함없다」고 발뺌하는 것은 이를테반이기도 하지만 어차피 그들의 자율화란 외미가 「대학이 외부적 제약요건을 건드리지 않고 침묵하고 외면한다고 자기 몸조심하면서 누구를 위해 무엇을 기여하는지도 모르는 주입과 연구를 할 수 있는 것만이 허용되는 자율」이고 보면 거기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그 대처 방안을 다른 곳에서 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문제의 핵심을 간파하여 「경찰관 교내 진압과 상주」로 말미암아 그들과 불필요한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더 큰 것을 잔비할 것을 바란다. 또한 사실상의 「자율화 포기」 선언으로 받아들여지는 제반의 여러 사태속에서 「학생운동」의 양태가 80년과 같이 비민주적 세력들에게 「몽장」의 구실을 주게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모든 행동에 있어서 신중하게 행동해주기를당부하는바이다.

오늘 「민중」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당국은 학생운동이 계급투쟁적 입장에서 표출력타리아 혁명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학적 입장에서 계급의 의미는 무엇이며 또 계급의식과 계급갈등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대한 글을 싣는다.

한국사회, 계층구조와 계급의식

사회계급은 경제적 통계분류와 함께 투철한 계급의식으로 무장된 집단일 때 형성

계급간의 갈등은 사회발전의 계기가 되기도 해

Ⅰ. 머리말

인간은 항상 서열과「위계(位階)」를 따지는 동물(homo hierarchicus)」이란, 지위의 높낮이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사회적 위신이나, 경제적인 면에서의 재력, 그리고 권력의 향유정도등으로 개개인 인간은 자신의 위치를 다른 사람들의 그것과 항상 비교하여 왔었다. 자신의 위치가 타인의 위치에 비해 뛰어어지는 경우, 이개인은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다른 사람들이 처해있는 수준이나 또는 그이상의 수준으로 자신의 위치를 끌어 올리려고 하는데서 인간사회는 그만큼 발전을 거듭하여, 이러한 과정에서 예기하였던 또는 예기치 않았던 각종의 알력과 마찰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긴장과 알력, 그리고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간에 빚어지는 갈등을 우리를 사회가 어느정도 융통성있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따라 사회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도하고 때로는 현대화의 와중에서 파괴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의 긴장과 마찰은 사회가 침체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고차원의 발전을 위해 태동하고 있다는, 사회전체의 건강상태가 양호함을 예시해주는 징후이기도 한것이다. 전혀 긴장감이 감돌지 않는 무풍(無風) 상태에 놓인 사회는 그냥 이대로 방치해 두면 언젠가는 침체의 깊은 늪속으로 한없음씩 빠져들어 가고 말것이다.

이러한 침체된 사회는 결차 건설적인 면에서의 긴장과 갈등을 관리할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될것이고 긴장관리 능력의 상실은 궁극에가서 사회적피곤(social entropy)을 자초하게 될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피곤이란 성질상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것이기에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이 싹트게 된다. 마치 망망대해에서 험악한 태풍이 휘몰아치기 직전에는 항상 죽음의 정적(dead calm)이 감돌듯이 항상 사회적피곤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는 다시 인간사회 발전의 원동력인 긴장과 알력이 나타나면서 자취를 감추고 마는 것이다.

Ⅱ. 사회계층과 사회계급

이 홍 탁
◇교양학부 교수
(사회학)

그런데 이같은 긴장과 알력은 개인과 개인간에 나타나기보다는 집단과 집단간에 나타나는 현상이기에 우리는 빈번히 알력이나 긴장을 논할 때는 사회계층을 연상하게 된다.

사회계층은 현상이란 카스트제도 (원래 caste란 말은 종족(種族) 을 의미하는 포르투칼어의 「casta」에서 유래된것임) 에서 시작하여 중세봉건사회의 신분제도, 그리고 근대의 자본주의사회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형태로 존재하여 왔다.

한국의 예를 보더라도 이씨조선 초기에 있어선 신분제도에 의하면 양반, 양인 (良人), 천민의 3가지 사회계층이 있었고 16세기에 들어와서 다시 계층이 분화되어 양반, 중인(中人), 양인, 천민으로 세분되었다. 새로이 등장한 중인계층은 대부분이 잡직 (雜職)에 종사하는 서얼 (庶孽)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열거하는 양반, 중인, 양인, 천민들은 사회계급 (social class) 이라 부를수 없고 단지 사회계층(social strata) 의 한 형태라고 설명하지 않을수 없다. 왜냐하면 원래 칼·맑스 (1818—1883)가 사회계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을 때는 단순한 통계적 분류를 염두에 둔 사회계층의 뜻과는 달리 「투철한 계급의식으로 단단히 무장이 된 자본가들과 노동자들을 의미」 하였기 때문이다.

중인, 양인, 그리고 천민들이 투철한 계급의식을 가졌으리라 기대할수 없는것은 현재 우리들의 사회에서 마계도 상류계층, 중류계층, 하류계층은 통계적으로 (그것도 불충분한 객관적인 자료이긴 하지만) 구분은 가능할지 모르나 이들 계층에 속해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느정도 투철한 계급의식을 소유하고 있는지는 고려의 대상마저 필수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통계적으로 중류계층으로 구분되어 지는것과, 이들 중류계층의 사람들이 실제로 중류계층에 대한 예학실을 어느정도 가지고 있고, 또 중류계층의 사람들로서 알고 있으며 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인지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의양으로는 빈틈없는 노동자계층에 속하는 사람이라도 사고 방식은 상류의 고등 룸펜들의 그것과 다를바가 없다면 이사람은 노동자계층에 속하나 노동자 계급에는 속할수가 없는 것이다.

영국의 존 밀러(John Millar (1735~1801)) 나 아담 (Adam Ferguson(1723~1816))의 이론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사회계급을 결정하는 것은 경제적인 요인 못지않게 사회문화적 요인이 막중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은 재언할 필요가 없다. 바꾸어 말하면 경제적 성장과 발전만이 있는 사회에는 사회계층만이 있을 뿐인 것이다. 사회문화면에서의 발전이 이루어진 사회에서, 다시 말해서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수준이 어느정도 수준에 도달한 사회에서 사회계급이 비로소 논란될수 있는 것임은 사회계급 의식(Klassenbewuptsem)이 싹트지 않는 곳에 사회계급이 존재할수 없기 때문이다.

Ⅲ. 한국내의 계급현황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 사회에는 이조시대이후 이때까지 계급보다는 계층이 존재하였다고 하겠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회계급이 이땅에 뿌리를 내릴수없었던것은 지난날계 36년동안에 일본은 한국사회를 물질적인면에서 수탈한것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정신적인면에서 유린을하였기 때문이다. 봉건사회에서 근대 시민사회로의 이행 (移行)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을바른시민정신을 이땅에 꽃피지못하게 짓밟아 버린 것이 일본의 한국침략이었다. 시민 정신의 공백상태에서 파의 (他意) 에 의해 이루어진 서구사회의 모방 (模倣) 과 서얼 (庶孽) 출신들의 의식수준이 어느정도 수준에 도달한 사회에서 사회계급이 비로소 논란될 필수 있는 것임은 사회계급 의식(Klassenbewuptsem)이 싹트지 않는 곳에 사회계급이 존재할수 없기 때문이다.

Ⅳ. 맺음말

표면상으로 나타나는 사회계층간의 알력이나 긴장은 자세히 분석하고 면밀히 헤쳐서 보면 크게 문제될 성질의것도 아닌것을 침소봉대하여 우왕좌왕하는것은 일차적으로 우리사회가 사회계층이란 현상에 대해 가졌던 그릇된 선입감때문이며 이차적으로는 이에대한 적절한 대응책, 즉 보다객관적인 분석이 미처 이루어지지 못했던데서 비롯된다. 이제까지 우리는 사회 계층이란 말을 입뚫의 터부 (Taboo)로 생각 하는 전근대적인따성을벗겨 버리지 못하였기에 계층간에 빚어 지는 선의의 경쟁이나 건설적인 면에서의 알력을 묘령있게 묘러 해나가는데 실패하였던 것이다.

사회계층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미비하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회계층은 바로 사회계급과 동일시 된다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고 사회계층의식이 싹트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계급의식을 부르짖는 기이한 현상을 초래한 것이다.

이는 마치 하류층 사람들은 모두가 노동자 계급이며 상류층 사람들은 모두가 자본가 계급이라는 기상천외의 「이론」을 탄생케 한 것이다.

이처럼 한국사회는 아직도 사회계층의식이 채 꽃봉오리를 맺지 못하고 있기에 기왕 맺은 꽃봉오리를 활짝 피게하기 위해서는 사회계층간의 알력에 대한 새로운 각도에서의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것이고, 이러한 사회계층간의 긴장이나 갈등이 결코 철저하게 사회발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발전시켜주는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할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회계층의 밑거름에에서 비로서 발육이 가능한 계급의식은 싹틀수 없는 것이다.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계급의식을 논하는 것이 시기상조인것 같다.

◇신민당사에서 농성중인 노동자들

원만히 해소되지 않을때 계급간의 긴장과 갈등이 심각한 대립 양상을 보일수도 있다

미네르바

▲『나는 인간으로서 인간에게 호소한다. 여러분의 인간성만을 기억하고 그밖의 것은 모두잊어버리라고. 그것을 할수있다면 새로운 낙원에의 길이 열린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앞에는 모든것의 사멸이 있을뿐이다』(버트란트러셀) 이는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개성에 호소하는 사상가의 필규이기도하며, 물아 (沒我) 적으로만 되어가는 세태에 대한 「인간성 회복」「양심회복」을 촉구하는 외침이 기도 할것이다.

▲세상을 살아가기가 자꾸만어려워 지는듯하다. 러셀의말은 우리들의 양심에 대한 「자기진단」을 생각하게 한다. 정의·자유·진리·평화등「필대용어」들만이 우리들의 뇌리에서 난무(乱舞)되어질뿐 그 실체는 공허하리 만큼찾을 길이 없는것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심정인 것이다.

그런데 또다시 서글픈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가장 양심적이며 신성시 되어지는 법관의 자리에 있는, 소신을 가진 젊은 판사들이 그들의 「양심선언」으로 인하여 지방법관으로 좌천되었다는 신문보도에 접하게 된것이 그것이다. 『공소(公訴)에 종사하는 법률가의 첫째의무는 유죄를 유지하는데 있지 않고 정의(正義)가 행(行)하여 지기를 추구하는데 있다』고 미국의 법률가 윤리헌장에 적혀있다. 유죄가 유지되는것이 아닌 정의가 행해지는 사회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

▲인간이 문명세계를 공꾸며 현재까지 하나의 사회를 이루어 오면서 해결해야 할 숙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어울려 머물러 살아가느냐」의 문제였다고 생각되어진다. 이러한 「어울림」을 위해서 방종과 타율을 최대한으로 배제시킨 많은 사회적 규정을 가져왔고 또한 인간의 권리를 강조하고, 보장하는 「법」이 명백히 통용되는 사회를 삶고있는 시대가 현대인 것이다.

어울림의 메아리

그러나 우리들의 교육과정에는 「악법도법이다」라는 모순된 명제가 진리인양 「법이므로 지켜져야 한다」고 명시되어있고 또 그렇게배워왔다. 이얼마나 우리사회의 모순을 대변하는 것인가!

▲이제 우리는 현대세계의냉혹성을 탓하고있을때가 아니다. 냉혹한 현실과 모순되고 심화되어가는 우리사회 제현상의 「제자리」를 위하여 「인간성」과 「양심」의 근절을 찾아야한다고 말하고 싶다. 허영과 사치로 치장한 「인권용호」의외침이아님을강조하고싶을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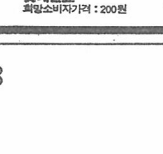
그렇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인간의 호소를…까지 찾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호소에대한 메아리는 들려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메아리없는 외침이 언제까지나 계속되어질지…. 오늘만큼은 나의 모습을 살펴보는 여유와 함께 우리들을 생각하여 보고 싶다. <경>

롯데제과

두가지 꼬깔콘

롯데 꼬깔콘은
고소한 맛과 양념구이,
두가지 맛이 있읍니다.

롯데 꼬깔콘은 미국 제너럴 밀즈(G. M.)의 특수공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양이 특이하며, 맛은 바삭바삭합니다. 온가족 함께 꼬깔콘을 즐기세요.



어린이 먹는 쇼크제과
롯데칸초
희망소비자가격 : 200원

김치맛 키다리제과
롯데키다리
희망소비자가격 : 100원

학내 복지시설 대폭개선 보완

도서관·구내식당·다방등의 문제점 개선돼

복지위원회 발족으로 지속적이고 연차적인 사업 실시하기로

2학기 개강과 함께 그간 지적해오던 학내복지시설이 대폭 보완·개선되게 되었다. 지난 8월29일, 「학내복지시설문제점 및 개선보완회의」에 이창복학생처장을 비롯 관계자 4명과 총학생회간부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1학기와 방학기간중 총학생회및 학생들이 건의, 요구한 사항을 차례로 검토하여 복지문제에 대한 구체적협의를 보았다. 이날 회의에서 학내복지문제를 가능한 9월말과 10월초에 걸쳐 시정하도록 하였으며, 시간이 걸리거나 예산지원의 규모가 큰 것은 시설적인운영을 결과로하여 연차적으로보완하도록 했다. 협의되어 시정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도서관>

방학 중 도서관에 280석, 대학원에 60석을 마련 하여 부족한 열람석을 보충하였고, 4층에 휴식을 위한 테이블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조명은 적정조명도를 측정, 전면 보완조치키로하였다. 또한 냉방시설은 3층열람실의 운영에대한 분석결과에의해 내년도에 4·5층에 에어콘을 설치하기 로하였으며 열람실내 2개의 시계를 설치하도록하였다. 도서관휴게실은 방학중현창고를 휴게실로 사용하기위해 중설공사를하여 40석을 넓혔으며 낡은 의자 탁자를 40개 교체하였고 유선방송시설을 설치하여 음악을 상시 (常時) 들을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TV및선풍기를 설치하였고 판매 품목도 단팥죽 잡팥떡 김밥등 9개 품목으로 늘여 계절에 맞도록 판매하도록하였다. 한편 도서관위의 주변을정리하여 야외벤취 의자 비치 파라솔등을 설치하여 도서관휴게실에서 수용할수 없는 인원을 수용할수 있도록 하였다.

<구내식당·다방>

84년도 아간강좌의 요구로운영주를 바꾼 식당은 가격인하의 문제는 타결되지 않았으나 백반·설렁탕·잡채밥·김치백반·등 식단의 다양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1주일분의 식단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한편, 식당내의 탁자·의자·그릇의 문제에 대해서도 필요한 것을 교체토록하고 식당내 근무자들의가운·모자착용을 통해 위생에철저를 기하도록 하였고 식탁에서 테이블보와 비닐을 9월중씌우기로 하였다. 구내다방은 전에 오후5시30분에 폐쇄하던 시간을 오후9시까지 늘이기로 하고 아르바이트 DJ를 두어 음악을 틀을수 있도록 하였으며 파티·세미나 행사를 학생처지도하에 구내다방에서 오후9시까지 할수있도록 하였다.

학생회관은 폐문시간을 오후 9시까지 늘여서 실시하고, 학생회관내 8개의 써클룸을 증설하여 써·연과 협의하여 써클룸 배정중에 있다. 구내서점에 있어서도 출판부와 협의하여 서적판매서적중 복사물과 서적잡을 입하토록 하였다. 강의실내 면적이 좁은 낡은의자를 500개이미 교체하였고 금년내 천여개를 수리교체할 계획중에 있으며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하였다. 또한 학생회관 휴게실을 전시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보았다. 한편, 교내에 만취증설과 아울러 잔디심기를 9월중으로 실시하도록 하였고 교내가로등 증설과 조명도를 조사하여 필요한 곳은 즉시 설치하도록 하였다.

한편, 인문과학관에서 (식당쪽) 미네르바동상으로 오르는 진입로를 계단식으로 9월중에 정리하고 야간·주간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 사워장은 깔판·옷장을 설치하고, 여학생휴게실은 유선음악시설과 TV를 9월중 설치하도록하였다. 이상과 같이 현실적으로 당면한 많은 문제가총학생회의 노력과 학교측의 지원으로 협의되어 9월중에 필요한 시설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협의되지못한 구내다방 복지위원회직영·식당에 학교재정지원으로 가격인하·이발소가격인하·시청각교육원시간연장·도서관뒤 아외휴게실 등나무설치등의 문제점은 지속적인 검토와 협의를 거쳐 해결되어야 할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이병육 복지부장은 『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중 실시될 복지문제개선 점검과함께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지속시킬 것』이라면서 『많은 학우들의 의견 개진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그간 학내적으로 누적되었던 복지시설에 많은 개선이 있었다. 이는 총학 복지부의 활동노력과 학교측의 지원에서 이루어 진것이라 볼수있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등담고 있는 학교기를에 대한 애착심과 후배들이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을 잘 이용하는데 있다고 보겠다. 또한, 계속적인 복지시설의 개선과 함께 복지위원회의 활동이 주목된다고 하겠다.

근로장학생 확대 절실히 필요

수혜자 50여명으로 월 10만원 미만이 대부분

근로부서 확대·장학금 증액…. 실질적인 보탬이돼야

근로장학금의 수혜자 혜택폭이 적어 이에 대한 대폭시정이 대두되고있다. 근로장학금을받는 근로장학생은「장학사정이빈」곤한 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교내특정부서에 배치되어 노력을 제공하는 근로학생 및 학생회운영에 공로가 있는 학생에게 지급한다」(외대일람 '85년판) 로 학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학생회간부및 임원, 신문사·방송국의 학생클럽.제외하면 그 수혜자는 극히 미미하여 보수액시 열악한 실정에 놓여있다. (학교측 공식 통계자료 없음, 서울 25명선, 용인 20명선으로 추정) 타교의 경우, 외부에서 구하지 못하는 부족을 교내에서 제도적 장치를 통해 학비를 거의 충당하고 있는 실정에 반해 본교에서의 근로학생이 받는 근로장학금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K대의 경우 평기별 팜실의 대출업무가 월12만원선인 것에 비해 본교는 조교팀에서 조교를 보조하는 수직생의 경우 월 5~7만원선(인원이 많은 과에만 있다) 이다. 도서관대출업무 담당이 월 5~10만원시청각교육원에 근무하는 경우 월 6만원 정도로 학기당 25~30만원선이 지급된다.

이들이 근무하는곳도 시청각실, 교수실 수직조교, 도서관 대출업무 담당으로 한정되어있고 이문중 시청각 교육원의경우 1학기동안 출입증, 자료대출, 녹음등으로 구분하여 그에따른학생배치가 있었으나 용인은없었다. 한편, 타교의 경우 잔디깎기 화장실, 복도청소를 비롯하여교수 원고대필, 강의실 정리등의근로노동 형태로 한학기35만원~50만원 선의 장학금을 일괄지급함고 있어 이에대한 근로의 확대와 아울러 학교측의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것이아르바이트 학생클대부분의 의견이요 바램인것이다. 약 50여명의 미미한 근로장학생 수에다 그나마 교수실에 있던 학생들도 셀프 서어비스로 전환 하면서 단한명의 학생도 없고 업자가 고용인을 쓰고있다.

그간 구내다방을비롯하여 학교내 여러곳에 근무하는 근로장학생들의 근무시간및 보수문제는 극히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결국 근로장학생의 확대는 학교정책적인 면과 재단의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 져야 한다. 현재 10만원 이하의 보수는 전면 조정이 되어 학기별 등록세대 큰보탬이 되도록 실질적인 장학금증액과 수혜자확대가 시급히 요망된다.

<문상연 기자>

아르바이트 알선 업무 저조

실수입 10만원 이하가 많아

방학중 본교내 아르바이트학생수는 이문캠퍼스 502명, 용인캠퍼스 95명으로 양캠퍼스 학생과는 발표했다. 이문 캠퍼스의 경우는 724명 신청중 69.6%, 용인캠퍼스는 300여명 신청중 27%가 부업알선되어 방학동안 활동하였다. (이하 본교 학생처 통계) 이들의 부업내용을 보면 교통정리 (이문 : 110명 용인 : 44명), 방범대원 (아간숙직, 경비실근무) · 시험감독 · 안내보조 (홍보요원 · 조사원 · 사무보조) 등의 일일직이 대부분이고 기타 통역, 번역등의 특수직종이어서 학문연장선위에서의 아르바이트라고는 생각하기힘들다.

한편, 아르바이트학생들의 보수는 대부분 일급과 주급으로 월말에 지급되는 형태인데, 최저 일급인 경우 5천원 주급은 2만5천원에서, 최고 일급4만원 주급20만원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고 이들의 평균보수는 19만원으로 집계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하루 4~5천원인 경우도 계산하면, 점심값·차비·담배값·기타등을 제하고 실수입은 8~13만원 경우도 못되고 그나마 신청절차와 결과가 까다로와 직접 고정직을 통한 높은 보수의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학생처는 지난 5일 (목) 학생처장을 비롯, 담당자 3명과 아르바이트학생 15명, 본보·영자신문·방송국 기자들이 참석한가운데 아르바이트의 문제점및 활성화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자리에서 학생들은 사회가 아르바이트대학생들에 가지는 편견과 대부분 육체노동에 의존하는 부업직종의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학교측의 적극적인 홍보및 알선업무를 통해 학생들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현재 대학생아르바이트를 알선하는 곳은 경향아르바이트은행(경향신문사 주관) 단 한 곳뿐이고 여기도 타교의 신청과 함께 비율제로 나뉘어 배분되어 모교에서의 부업알선은 여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있는 형편이다. 이에대해 이창복학생처장은 학교측의 적극적인 홍보및 부업알선을 약속하면서, 건의사항중 부족 담당전담반을 학생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할것 임을 밝히고, 성실한 근무를 통한 재산성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힘써줄 것을 부탁했다.

학생 아르바이트는 학문의 범주속에서 학비조달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형태일 것이다. 따라서 이에대한 사회각층의 관심과 인력수용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본교에서의 계속적인 홍보, 적극적인 알선대책과 함께 학교내에서 소화흡수될 수 있도록 근로 장학생의 혜택수를 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장학생실태기사 참조) 결국 학생아르바이트는 학교·대학생·사회의 삼자(三者) 가 상호보완하는 관계에서 해쳐나갈 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기획부>

이 사람

총학생회 복지부장 이 병 욱

『학생 복지의 개선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의사개진과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완성된다』면서 『학생복지를 위한궁극적인 모델은 학생들이 등록금으로 지원(自費)되는 소비조합의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힌다.

학교내 복지문제는 의협적인것을 제외하고는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뿐전에서 뛰치닥거리에 이리저리 바쁘면서도 일분한번 당지 않지만 가장 많은 접촉을 하게되는 사람인 이병육(총학복지부장·아간강좌G, 3)군 앨범문제를 비롯 학내전반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이기도하다.

재단의 빈약과 학교부지의 협소함으로 인해 광범위한 복지개선은 어려운실정임을 밝히는 이군은 앨범문제가 지연된 점을 학우들께 미안하다는 말로서부를 꺼낸다.

"적극 참여 바랍니다"

학우들의 자유로운 면학분위기속에서 학문토론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사회제도의 개선과 학내의 제반시설의 확충을통한 보완임을 강조하는 이군의 그간 활동은 눈물겨웠어 바쁘다.

도서관 문제를 비롯 교내서점, 식당, 다방 등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자잘한 일에도 일일이 확인하고 시정하는 작업은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않는 일반 학우들에게는 그 고충이 실감나지 않을 것이라고.

『정말 바쁘십니다. 최선을다하여 일하고 있는데, 일하고 나면 도 빈자리가 생기고…. 어딜갠 주저앉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것이 학생활동의 한부분이고 나자신이 여러 학우들의 복지에힘써서 학원 분위기 조성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는데서 보람과사명을 느낍니다.』

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않은 현시점에서 복지부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용인 복지부장 1명, 단대추천 9명, 위원장추천 2명으로 13명의 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와 협의된 사항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독립된 기구로서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 이군의 2학기계획이다.

현재의 미네르바 동산의 보완문제는 2백여 석의 야외소극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복지부장으로서의 크다면 큰 바램이라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학교기물을 아껴줬 것을 부탁하는 이군은 앨범문제로 급히 가봐야 한다면서 감사하다는 기자의 인사말이 들리는지 마는지 황망히 일어선다.

<염>

써클룸배정에 문제점

써클 성격별로 구분 재조정되어야

써클룸배정이 진통을 겪고있다. 학내써클활동의 활성화라는 취지아래 확장된 써클룸(학생회관 2층 9개룸, 도서관지하 4개룸) 13개는 그간 늘어난 써클수에 비해 모자라는 형편이어서 각써클들은 써클룸 확보에 고심하고 있다. 2개써클, 또는 4개써클이 함께 사용하던 써클룸의 부족현상이 이번 써클룸확대로 다소 완화되었으나 입지장소·위치등의 문제로 인해 각 써클간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문화써클들의 활동·운동써클들의 사워실이 용등에 대한 고려가 각 써클간의 협의로 제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문화운동써클인 가면극연구회·민속악놀이반·노래모임 새벌걸은 학술써클및 동호인 써클과는 달리 공연준비를 위해 방음장치가 된 연습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학생회관에 위치한 민속악놀이반·노래모임 새벌걸은 연습과정이 다른 써클및 근접한 고시반들에 시끄러운 소리를 주어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인데 현재 본교내에서 방음이 설치된 써클룸은 사회과학관 지하의 2개의 써클룸 뿐이다. 그나마 한개의 써클룸은 가면극연구회가 있는 형편이고 방음시설된다는 써클룸은 농구반이 사용하고 있어 이 룸에대한 문화운동써클의 사용이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농구반은 사회과학관에 사워장이 설치되어있고 설사 이전한다하더라도 동건물내의 다른 써클룸의 여유가 없어 상호간에 마찰을 겪고있는 형편이다. 이에대해 양옥만써클연합회장은 『써연의 중재하에 각써클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룸배정을 할 수 있도록 현재 협의중에 있다』 면서 써클룸배정의 어려움을 말한다.

그간 학생회관의 전사용 (全使用) 문제가 대두되면서 학생회관 2층의 강의실의 써클룸사용이 있어왔다.

이러한 써클룸배정의 문제해결은 현재 써클연합회에 구성되어있는 4개분과 (학술·동교·문화·체육) 별로 구분하여 써클룸 전반에 관한 재조정이 필요할것으로 보인다. 문화운동써클역시 공연연습등을 감안하여 방음시설을 갖춘 룸으로의 이전이 되어야하며 운동써클은 사워실이 마련된 건물내에 있도록 조정이 있어야 한다.

「대학문화의 꽃」인 써클활동을 지원하기위한 써클룸 확보는 절대적이고 학교측의 써클룸마련이 요청되나, 현재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써클연합과 학생처의 주도하에 전써클들의 룸배정이 써클 특성별로 새롭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교수동정

▲경제학과 : 민병균교수=85년 7월 9일~85년 8월23일, 제3회 버클리대학하계영어연수회, 본교생32명인솔.

▲마인어과 : 정영림교수=85년 5월31일~85년 8월31일, 「한국단편선Ⅱ」 출판기념회및 「한국단편선Ⅱ」 출판준비차 말레이지아 방문. 85년 8월 3일~85년 8월12일까지 스리랑카의 콜롬보에서 개최된 「세계 말레이지아학」 세미나 참석.

▲정치외교과 : 성환묵교수=84년 8월 1일~85년 8월 5일, 미국 오레곤대학에서 「미국의 대일정책」 수학.

▲유정렬교수=학술회의 참석차 방일귀국.

▲베트남어과 : 김기태교수=미국 캘리포니아대(UCB)에서 1년간 수학하고 귀국.

<서울 캠퍼스>

▲사법연구실 민법특강
9월11일(수)부터 25일(수)까지 대학원 104호. 평일 오후 5시~7시30분, 토요일 오전9시30분~12시. 강의 : 김주수교수(연세대)

▲서예반 신입생모집
붓글씨에 관심있는 전외대생 매주 목요일 초보자를 위한 서법(書法) 발표회

▲안양학우회 개강모임 9월15일(토)포서각.

<용인 캠퍼스>

▲고시연구실 입실시험
모집반 : 행시, CPA 모집대상 : 1~3학년 원서접수 : 9월12일까지 (본연구실) 시험일시 : 9월12일 PM5시 장소 : 2412

▲서반아어과 민속춤학회 회원모집
9월11일(수) PM4 : 20까지 접수 : 1206

▲외대산악부 신입회원 모집
대상 : 1학년 접수처 : 4424 기간 : 9월2일~20일

자율화의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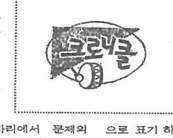
○…근간 여당의「자기혁신운동」은 방학기간중 「민중·민주·민족」의 민자통협 혁신(?)에서부터 시작되어「사법부 인사 파동」에 이르러 그 극에 달하고 있는 느낌인데,

그 바람이 이번에는 「일부 국소수 극렬 좌경 반체제 시위 학생」들이 있다는 캠퍼스에 불아닥쳐,

50~100m까지 교문안으로 쇄어들어가며 「왜곡된 자율화의 조정을 목적으로 결단한 처우」라는 혁신과 시위진압이었다는 세간의 후문(後聞)인 바,

민주가 정취되어 민중이 해방되고 민족통일 오는 길이 폐쇄포그와 「혁신」으로 가능하다는 그 개탄적 사고부터 혁신하는 것이 참혁신이 아닐런지.

○…사람과 행정(行政) 은 개체과 전취보다는 정찬과 성과를 더중 이한다는 이 시대 암암한 거짓 명제를 다시보아 서 글프기 짝이 없어.



일전 아르바이트 문제 정개선을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문제의 개선보다는 그동안주고받은 학생처의 「알아달라」가 지나쳐 옥에 티였는데.

원론이 하는일 오른손이 몰라도 고생하고 주고받는것은 결로 눈에 보이는 법이거늘, 뜻뜻뜻….

○…활동중인 왕산골의 신축교사의 표기가 「3강의동」인지 「4강의동」인지 정확하지 않아 흠산를 발걸음만 우왕좌왕.

그동안 문리대 건물이 1, 2강의동으로 구분되어 있어, 신축교사는 「3강의동」이 되어야하나 건립순서에 따라 「4강의동」 혼선이 빚어진것이 그 원인.

충건물 4개뿐인 왕산골이 어울리지 않는 「건물성격」을 운운하며 신축교사를 4층 표기한 것은 「왕산의 부실성」을 극복하고자한 아이디어라는 흠산들의 입방아.

○…크로니클자 귀한 지난주 3일 (화) 은 가뭄이나 좀은 이문벌에 「학생총회」가 열린다는 소문과함께 미욱 불비고, 긴장이 감돌았음니다. 이에 저는 「학원 안정법」이라는 방촌 (方寸)의 인 (人) 을 통고 주동시위자 검거불위한 자율복장의 잠조가 모인 까닭 이라고 주장하고, 모종산은 시위꽃수가 제3위의 본교의 실체를 보기 위한 본교와 타교와의 커룹 중가라는 의견이 평평히맞서 던중 싸움이 있어 쌍코피가 터지고 이 지경이 되었음니다. 이에 판결을 바랍니다. 람갑.

모두 나가 놀아라~.

나가 놀아라!

AFKN 시청 教材(週刊)
Speak-along English
TV나 RADIO로 放送되는 News, DRAMA, 교양교육프로 等을 녹화(녹음)해 투시면, 放送原文과 번역 해설집 및 別冊附錄(정통영어 회화론·全24篇)을 무슨하여 드리며 구독자께서는 편리한 시간에 반복 교육을 받으실 수 있읍니다.
(首席 친입인) DWIGHT J. STAILY 外
(구독료) 3個月分 1,000원, 6個月分 30,000원
(우편대체구좌) 010017-31-1080639 (코네스사)
(전화) 274-3498 KONECS CORP(敎育 2 部)
274-6871 서울 중구 을지로5가 20-40
274-6875 (연합빌딩 4층)
274-6870

●미국英어협회(ATA)회원단체
아세아 외국어 학원
*강좌안내 (접수중)
●TOEFL·GRE·GMAT·영어실력기초
●일본어·중국어·불어·독어·국어·한자
●SAT·SAUGE COURSE·통역·번역
●영어·일어·독어·불어·중국어·한자
●기초·회화·작문·번역·기초·고급·
원어민·전문가·전문·아세아학원·
전문강좌
전화번호 : 765-0917
영등포구 대림3동 (대림시장 대각선)
한국어 전문강좌

김수철·나미 조인트 리사이틀!
매일밤 개그맨 심형래 진행으로 대학인을 초대합니다.
★대학가 귀엣말★
"빙글빙글"돌고 싶은 마음 그대는 "왜 모르시나"
디스코텍 마이하우스로 "나도야 간다"

★표 지역에서 받으신 티켓을 선물과 교환해세요.
명 동 TEL. 777-6861/2
MY HOUSE

大學英語
教養, 留學, 就職, 大學院試驗準備
開講⇨ 月 日
(수시 접수)
李在玉TOEFL
아카데미TOEFL
時事TOEFL
성문綜合英語,
Vocabulary22,000(12,000)
TOEFL LC, AFKN
英文解釋①②③, 英作文
Word power, 美人會話 TIME
基礎英語會話 성문基本英語
三位一體 大學院受驗英語
민병철生活英語, 美國生活英語
英語實力基礎, SCREEN 會話
美國語Hearing GRE, GMAT
實用英語会話 TOEIC
受驗日語(各種試驗對備)
初級日語 中級日語 東京日本語
高級日語, 基礎日語會話
ダイジェスト, 日語高級會話
獨語文法完成 프랑스 語
서반아語; 中國語
院長 : 文昌淳
종로2가 종로서적뒤편 734-2442·732-9226
時事英語學院

人間·技術·未來
럭키금성
석유를 아낍시다
이슬은 순간을 빛내고 곧 사라집니다. 이슬을 받는 정성——
이는 바로 한방울 한 방울의 석유를 만드는 지최 호남정유의 기업정신입니다. 소중한 자연의 선물 석유를 아낍시다.
호남정유주식회사

◇「신명」과 함께

함께 우리는 생활문화

『우리는 모여서 얘기해볼까/우리가 살고 싶은 동네는 쿨쿡 쿨쿡 때문 연기 빵빵차 소리 찌푸린 얼굴 볼수없는 말껏 뛰놀고 인정넘치는 서로 돕는 우리 동네 살고 싶어요』

80년대이후 「우리 것을 찾자」는 운동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어왔다. 탈춤·민요 부르기·대동놀이 등이 바로그것. 그런데 이러한 민속을 바탕으로 생활대도하나에서부터 우리 습성, 우리정서에 맞는 우리의 모습을 찾자는 모임이 있어 찾아보았다. 민족미술·탈춤·풍물·민담 등 각 분야에서 「우리것」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던 젊은이들이듯을 모은 생활문화 연구회 「신명」(대표 : 김미남).

『우리의 생활방식은 적극적이고 활동성있는 「신명」고 자세였지요. 그런데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잘못된 교육·사회풍토는 그러한 태도에 제약을 주었고 우리 생활은 소극적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올 1월 전통적인 우리 생활정서에 어울리는 문화개발과 보급을 통해 인간복의 건전한 생활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생활문화 큰 해교(학교)」를 열었다. 탈춤·민요·풍물·대동놀이 등의 강습을 통해 탈춤을 추면서 표현법과 자기 개방성을 갖고 민요를 부르고 풍물을 통해서 공동체적인 신명성을 드높이는동단순한 우리 것 전수에 그치지 않고 생활과 접맥시키려했다.

한마디로 「생활문화운동」을 지향하는「신명」의 활동은 이것만이 아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인 먹는 음식, 옷, 주거지등에서도 우리 것을 찾아야 한다는 뚜렷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우선 「신명」이 중점을 두고 기획하고 있는 것이「우리옷 입기 발표회」.

「입기 편하고 일하기 편한 검소한 옷에 조상의 지혜가 담긴 옷이 바로 우리 옷」이라고 「신명」나름의 정의를 내려 우리옷을 직접 만들어 지난해 7월과 올 6월 두차례의 발표를 가졌다. 영어 속어나 외국가수의 선정적인 그림대신 독립선언문의 문구나 불화, 심장생, 민화단청, 기와 무늬와 민속놀이등을 도형화 하여 티셔츠에 새겨 넣었고 한복을 현대생활에 맞게 개량하였다.

그 종류도 전통 한복을 활동하기에 편하게 만든「일옷」잔치와 민속놀이에 보기좋은 「놀이옷」조상의 정서와 지혜가 담긴 「그림옷」으로 나누어 전시해 더욱 관심을 끌게했다.

창선의 종류인 국선도를 이용 신명놀이세조도 만들어 심신의 피로를 풀게하는 등 우리 것을 기초로 놀이기회도 함께 하고 있는「신명」은 앞으로 제3회「우리 옷 입기 발표회」를 9월 22일 갖을 예정으로 계속해서 이 행사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고「생활문화 큰 핵교」도 적어도 1년에 한번씩은 열게획으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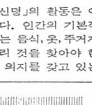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들이바라는 것은 우리와 가장 밀접하게 만나 여가생활 대부분을 차지해 버리는 TV, 그 「TV를 한달에 한번 보지않자」를 신명 생활문화선언으로 선포하여 한달에 하루라도 건강한 대화와 건전한 놀이를 통해 여가생활을 즐기자고 시작한 생활문화운동을 계속보급시켜 생활문화회원을 모집, 「게」를 조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익루기로·삶못 전해진 「게」의 의미를 본래 삶부상조의 의미로 되살려 함께 우리것을 생각하고 즐기고 보급하고 싶은 것이다.

84년 6월에 창단한 짧은연륜과 「뜻」 하나로 모였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것에도 불구하고 열성적으로 행사를추진하여 많은성과를 이룬 「신명」.

『우리것찾기라고 옛날것을 그대로 답습하자는것은 절대아님니. 우리의 건강한 생활문화는 흔쾌없고 서구풍, 왜색풍이 판치는 이때 우리 것을 뿌리로하여 신명성 공동체성 민주성 있는 우리문화를 생활화하자는것이 저희의 의지입니다』

「신명」의 종은사무실은 우리고유의 문양이 이름의 의욕과 활동을 대변해 주는양 어지럽게 벽을 장식하고 있었다.

<현>



우리가 입고 싶은 옷 엘렌포키, 나이키같은 비싼 옷은 아니지만 편안하고 뛰어놀기, 좋은 수수한 우리한복입고 싶어요.

<우리옷 입기 시사회 장면>

문예산책

38

마르크스思想의 理論構造

에른스트 피셔 著
金 洙 萬 譯

E. 피셔 지음
노 승 우 번역
전 예 원 펴냄
값 2,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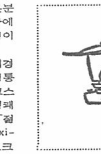
카루 헌트(R. N. Carew Hunt), 후크(S. Hook) 및 에이비네리(S. Aviveri) 의 저서와 함께 북미 각 대학의 공산주의관계 강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E. 피셔의 역저「The Essential Marx」가 본교 노승우교수에 의해 번역, 출간됨에 따라 국내 정치철학계의 전문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대학원 학생들의 수업에 큰 도움을 더하게 되었다.

특히 피셔의 저서는 여타 공산주의및 사회주의사상관계「텍스트」와는 달리 적절하고도 충분한 원전의 인용이 특징을 이루고 있으며, 저자가 밝혔듯이 「마르크스로 하여금 자신의 이론체계를 스스로 비판케하려는」 의도가 뛰어난 논리구조에 통합되어 독자로 하여금 지극히 균형적인 시각(Balanced Outlook) 을 갖도록 강요하고 있다. 제1장으로부터 14장에 이르기까지 인식론적 기초, 경제철학, 사회변동이론등 마르크스사상의 중심분야가 명쾌하게 비판되고 있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현대 공산주의의 현황에 대한 간결한 분석이 권말에 첨가되어 하나의「텍스트」로서 손색없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장~제4장 까지는 마르크스 경제이론의 기초를이루고 있는 바 노동 및 소외(alienation)의 개념이 상술되어있고, 이는 다시 제5장의 계급투쟁이론과 제7장의 잉여가치론, 그리고 제8장의 이윤및 자본분석과 연계·통합되어 제10장에서 마르크스시즘의 절정—혁명이론—에 달하게 된다.

물론 그의 사상의 생성배경을 이루고 있는 헤겔류의 정통독일형이상학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 역시 간명하고도 명쾌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또한「젊은 마르크스즘 (Young Marxism)」으로부터 「완성된 마르크시즘 (Marxism Matured)」에 이르기 까지 철학적 사유의 변환과정을 면밀히 추적하여 총체적 이론체계의 「테마」를 도출하려는 시도가 눈에 두드러진다.

최근에 이르러 사회과학 및 사회사상계통의 여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대부분이 마르크스원전의 의미를 전달하는 메에는 미흡했고, 진정으로 마르크스가 무엇을 문제시하고 해답을 구하고자 했는가에 대해는 갈증과갈은 답답함을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책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있으며 대학원및 학부학생들을위한 교과서로서도손색이없을것이다. 일견 대단히 난해한 원전을 자구 (字句) 하나하나마다 충실히 번역한 노교수의 노고가 매페이지마다 발견되는 본서의 일독을 주저없이 권한다.



김 응 진

<교양학부 교수>

마르크스가 진정으로 무엇을 문제시 하고 있는 가에 대해 해답을 주고 있어

내용의 상당부분이 공산주의 사회의 도래를 필연화하는 경제적「다이나믹스」에 할애되어 「정치적 마르크시즘」에 연관된 각종 팜플렛이나 소규모 「모노그래프」를 충분히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실상 정치적 마르크스의 모습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못한 상황하에서 성급한 일반화 (Hasty Generalization)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저자의 태도는 오히려 수긍할 만한 것이라 하겠다.

△글을 모읍니다

본보 문화부는 세학기부터 독자 참여란을 대폭 늘려 독자여러분의 참신하고 날카로운 글을 싣고자 합니다.

외대학보는 독자 여러분의 신문이며 외대학보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읍니다.

△문예산책—연극·영화 등 문화 공연의 관전평및 문화계 제반 월사소개 (8~10매)

△문화시론—문화계 전반에 관한 사회·시사성 있는 소론(15매 내외)

△서 평—6~8매

△단편소설—60~70매

△시화와진—사진과 짧은 글

△그밖에 수필·시·평론·독후감등 문예물(8매 내외)

△제 출 처—외대학보학생기자실 (서울 : 학생회관 309호) (용인 : 신축교사 401호)

외 대 학 보

신간소개

대중매체와 의식구조

—한스 M. 엔젠스베르거 지음
—문 희영 옮김

신문·잡지·라디오·TV등 인간의식을 다루는「의식산업」(Bewusstseins—Induistrie)을다룬 책으로「정보」와 「정보의 해설」을 의도적으로 혼동하여 스스로의 겁열에 의해 사실을 은폐, 왜곡하는 어느 신문사의 형태를 비판하고 독특한 문체와 은어를 사용함으로써 사실을전혀 다른 것으로 왜곡시키는 어느 잡지사 기사를 분석하는 등, 저자 특유의 필치로 의식산업을 분석, 비판하고 있다.

<일월서각펴냄 값 3,000원>

가시 많은 숲에서

—영언문화사편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 출생 작가들을 중심으로 한 한국현대수필선. 식민지시대, 해방후 혼란, 6·25등의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그랑시 작가들의 고민과 감성, 그리고 정신세계를 느낄수있는 수필선으로 작가약력, 저서등도함께 소개하고 있다.

<영언문화사펴냄 값2,800원>

문화단신

도깨비 만들기

—신선 극장

신선극장은 정북근 극본「도깨비 만들기」를 서현석 연출로 9월10일부터 22일까지 무대에 올린다.

오늘날 우리의 양심을 되돌아 보게 하는 창작극으로 현대인의 양심문제를 우화적으로 다루고 있다. 초연, 공연시간은 4시30분, 7시30분.

비디오 상영

—을인 시청각실

9월중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9월10일·12일 Mandingo

9월17일·19일 Police Academy

9월24일·26일 Friday the 13th

장소 시청각실—영사실(1412)

방영시간 오후1시30분

정의의 사람들

—외대 연극반

외대연극반은 A. Camus 원작「정의의 사람들」을 방원(경희대 교수) 번역으로 공연을 가진다.

이 작품은 러시아 브나르도 운동 당시를 배경으로 인생에 있어서의 정의와 그 정의의 인간 구현과정을 그리고 있다.

공연일시는 9월10일(화)부터 12일(목)까지 대학원 6105에서 오후 5시30분부터 공연을 하며 입장료는 500원.

우리말의 쓰임새

㊽ 왁자하다

왁자하다의 뜻 : ①정신이 어지럽도록떠들다 ②왜자하다 (소문이 굉장하게 퍼지다).

①의 뜻이 담긴 귀절을 예를들어 본다 : 파룬한 잉새들은/왁자하다/싱그럽다/개꾸리 을을 갈다. (작경용의 봄시「초여름」에서)

나약한 안테리겐짜 변주곡 죽음을 위한

—가난한 사람을 보면 동정보다 울화부터 터지는 사나이 이야기—

서(徐)

철가 말들려 지나치는 자리
지팡이 말들대며
부자는 급행이 스쳐 지나치면
꾸부정한 얼굴의 사내가 건널목에 서 있는게 보인다.
책 뭉이지자 못해 뒤로자리는 해가
산상의 긴 그림자만이 와서 머무는 곳
꼬마를 문제 내려다보이는 곳
덜해 새 이을을 잊지 못하고
건널게 꺼져가는 안뜨만이 보인다.
얼굴이 교회의 붉은 쉬가가 아래로
밤 창의 응이지는
쉬직 대에 아스팔트 위에 일렬 줄을 돌아가는
축 처진 동상이 서 있는 사내가 보인다.

본(本) I

언 호(安) 시월의 모퉈 한가닥 하는 사람이었다
가지를 갖는다는
그 스스로 자정한 월월은
새로운 수명을 얻게하였다.

본(本) II

허나 지워진 사내 스스로의 가난은
양심적과 거리낌없이 파악 되어야 했다
최루가스 자욱한 캠퍼스의 날렴
언제나 화장실을 찾게끔 되어버린
변한 것이다. 두려움
실질적 행동은 답답의 결론으로 미뤄지
사고를 지탱해 온 그의 갖춰진 체질을
보편미제로 멸시자의 왕자 파부지게한
인간상실의 처다본 벽은 더욱 그를 소외했고
세태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백금물과
아전인 체 멸구지 못하여 이성을 잡기하는
인공의 모순 (사고라 불우는) 은
더욱 그를 초라하게 부패지게한
권(權)
최루를 뿌리인간 놓은 희롱시계와
사월 절정이 행진 벌어진 코트가
한가의 모퉈한 복과
수 및 앞의 수평제를 놓고 채
골목길을 돌아가는 담쟁이들은 연상을 따라나서면 날
그는 뚜어야 했다 달래는
더이상의 부의미한 삶은 그의 사고를
지탱할 수 없음을 이우로 해서
하여 그의 이름은 잊은 파자본만
뜬재가 가슴만 살을 잦게 되었다.

이 이 생

<동양·중국어·3>

외대만평

자!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

軍·행정병 모집
육·해군 참모총장 위촉서
자격 : 수교 17~26세 고졸이상(육학교졸업자 포함)
복전 : 수교 17~26세 고졸이상(육학교졸업자 포함)
자격증취득, 각군진출후 거쳐임대(교전체험방송)
관련 인성 서예 채트 학원
펜 글 씨 채트, 도안
송파구 가락동 관련전문 학원
강남구 신사동사거리
542-2323
543-1446
기숙사 완비
732-5346
735-3771

●7·9級 公務員
●仲介士
●行政職 技術職
●通信公社 4·6級
●損害査定人
●勞務士
●美人会話 日本語 TOEFL 綜合英語
문종고 외국어 시 학원

외국어교육의 선구자
PAGODA
많은 대학인과 자성인들이 파고다에서 다시 태어날수 있게 된 이유는
외국어 교육과 우리의 염광된 미래를 위해 별처럼 빛나는 교수진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1. 영 어회화 S. L. E (각반12명 · 전원미국인강사) 미국생활영어·SIDE BY SIDE 기초영어회화 ACTIVE 회화·TOEFL L.C·AFKN 청취반
2. 영 어독해 문법 영작·(유학) TOEFL·종합영어 영어팡토, VOC.22000·영어실력기초·대학 기본영어·무역영어·DGR독해·영어순해·TIME
3. 일 본어·파고다불어·독일어·중국어·한국어·프랑스인·일본인·독일인·중국인 회화·NHK청취(전원 학사석사출신외국인·강사비자소지)
4. 특 수후련원 최신어학교수법·외국식학습분위기 국내 최신시설·우료종취득·전철통학권발급.
문의전화·274-4000 274-6821~2
현재 다음달 예약접수중
종로2가파고다극장건너편흰빌딩
I CAN DO
파고다외국어학원

운전을 배웁시다
시내운전—연수
16년 전통·성실한 교육
특전 ①대학생, 직장인단체 특별우대 ②외국(이민)출국자 특별환영 ③실습시간 자유선택
★★★★컴퓨터 교육시설 완비★★★★
學校法人 新進學園
新進자동차학원
수시접수(야간·휴일도 접수함)

永登浦學院	영등포 양평동 경인고속도로입구	0036~7 (633) 3962 3963
西 部學院	은평구응암동 신진공고 앞	1459 (388) 2997 2684
北 部學院	도봉구 번동 북부경찰서 뒤	(994) 2861~3

대한민국 필독서
I 88년 후일 88년.
서울지방의 최고 기온은 33도를 기록했읍니다. 전국적으로 생생작전 터져가 기승을 부리던 바닷도 전국에서 3994명의 목격자가「단」을 발견했다는 기인의 진바한기만 해도 숫자 억억 벽하는 변동인은 날에도 많은 목격자 서 소상을 전은 역년은 부상당하다.
II 벽이후 37주 8개월 동안 전쟁 세스럽의 전월은 반으로 전국의 목격 된 서람수 서전, 비참세 정국인 전쟁을 주장서전 화제의 단꿈/소설 인가, 민주적 소설놀라인가? 교수·학생·교단을 뒤흔들어 혼돈·사상·관료적·주주·적반인데 이로기에서 전전통 문화와 한복 복원 민주적 자주성을 일깨우는 조세한 소설이 지금 비평을 화준들고 있읍니다.
도시에 나타난 神仙, 羽鶴道人 권필진 옹의 세계
1 修鍊 성실전 연연수 등 비로 화장의에 발원된 논보르로 정치의 방공주 프라보단 주의도전, 고전에 조명 정세는 조공정세의 조선비보고, 여러서지지 주의에는 봊사·뒤주·휴보·귀화들의 발문이 결비지 접없었다는. 6세에 도공수련을 지장하였고, 8세에 서서강공주 독파하였으며, 13세에 -킨스수업 시험을 기재 10세에는 거대조 정전조주전세서 보위의 뒤·조도조·후조장·뒤주모의 교육이 발표 전월나 전설이 이나번호중 조명세요읍니다.
2 증언 주의 선조들의 초장세은 유리리리리 그것은 뒤에 놓기변중니다. 중산·축지·장풍·둔갑 등 초월 力교는 신비로운 세계. 50~100년 전만 해도 주리리세는 주리중 불스리리 세조로 단조리다. 주의도전조부터 있는 한국 초장세계들의 경전은 비화가 준비법중 절만중 주의전전세계 절저리다.
3 國運 통가서전전 한주월조로 비래를 주시. 주의도전서 도표라는 옥조라 세계정세에 관한 대세전. 15년 이내에 동일이 된다. 고구리의 세 갈조주
외국세에 세계적 大國이 될 백두산족(한민족)의 3천년 大運.
仙人入門 조대도—박 지음 김 순 옥 값 1,200원
고전이 되면 신비, 옛지혜도 건강은 남는다
살아있는 고전, 정신세계의 책! ㉤구도자 요가난다 ㉥나는 히말라야의 요기였다
서울·동구 명동동 1가 37-11 ☎ 275-8661
정신세계사